

천명 목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램넌트는 유일성의 힘으로 하고,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며 가라는 것이다. 사업하는 중직자는 유일성의 사업을 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유일성의 전도, 선교하는 사람은 유일성의 선교를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뭘 해도 힘들 것이다.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주로 우울증, 정신문제로 심각하다. 제3세계라는 후진국은 주로 가난, 질병,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한다. 개발 도상국이라고 하는 중진국은 좀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 주로 경제 문제다. 여기에 신자들조차 노예, 포로, 속국처럼 살고 있다. 램넌트들은 어른이 될수록 세상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지금 느끼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주셨는데 못 깨닫고(무지), 못 찾아내고(체험을 못하는 것), 못 누리고 있는 것 뿐이다. 없는 것 하고, 있는 데 못 깨닫고, 못 찾아내고, 못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사실은 더 불쌍하고 억울한 일이다. 우리가 제 3세계에 선교를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아예 없다. 주로 질병이 피부병, 영양실조,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인데 우리에게만 약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아예 없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40대다. 그래서 가서 도와준다. 그러나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문제가 끝나는가? 또 아플 것이고, 평생 먹을 약을 줄 수도 없다. **우리는 참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 목표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줄 수 없는 답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답이다. 하나님의 사람만 줄 수 있는 답이다. 그것이 유일성 선교다. 세가지 의미다.

1. 유일성 선교의 첫 번째 의미-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천명”이 뭐냐?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 죽게 했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겪는 문제, 아픔, 실패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똑같다. 내 문제를 통해 천명을 발견하고(갈보리 체험), 거기서 날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감람산 체험), 내가 할 일 곧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산 사람이다(마가 다락방 체험)

1) 결국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가? 그 문제가 육신문제, 정신문제, 가정문제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의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었다(창1:27-28) 그런데 다 무너졌고, 다 잃어 버렸고, 다 빼앗긴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인가? 그것이 원죄문제요, 사단문제이다.

2) 본문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 어둠이 단순히 저 낮에 비추는 태양과 밤에 비추는 달이 없어서 오는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3장에 첫 인생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이요(원죄), 창6장에 결혼과 가정을 타락시킨 사단이요(네펠람), 창11장에 국가와 엘리프들을 타락시킨 사단이다(바벨탑). 이것이 정치(행13장), 경제(행16장), 문화(행19장) 속에 파고 들었고, 전 개인에게 파고 든 것이다(불신자가 당하는 저주 6가지)

3)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나? 이 원죄와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실 수 있는 분은 그 분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면서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다.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뭐냐? 죄의 권세를 밟은 것이다(창3:15).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이다(롬8:1-2)

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남미 가면 뱀의 머리를 밟은 자가 마리아로 바뀌어 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자기가 당하는 문제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신자가 놀리고 시달리다가 우울증, 정신문제, 자살까지 가는 것이다. 엠6:12의 마귀 체계를 모르고 산다.

②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치유가 뭐냐? 몸도 치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사단에게 눌러 있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행10:38). 사단, 운명, 지옥에 묶여 있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다(요8:44, 요1:12)

2. 유일성 선교의 두 번째 의미- 유일한 힘을 내가 누리고, 그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다. 막16:17-18이다.

1) 구원받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것이다. 특히 천명을 깨달을 때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본문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그 분의 영광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 어둠이 나를 속이려고 문제를 가져오나 그 어둠을 이길 빛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

2) 이 주어진 축복을 내 것으로 찾아 누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 체험, 곧 영성 개발이다(WRC 1강)

① 방법이 뭐냐? 하루에 단 5분 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정시기도) 그 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라.

이 힘이 내 각인을 바꾸고, 숨은 상처의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도록 영적 메시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훈련하라는 것이다(24시 기도). 지금 세상의 엘리프들이 답도 없이 이것을 하고 있다(묵상, 집중, 몰입) 지성, 감정, 육신, 영성이 전부 뇌에서 나온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영성 훈련이다. 뇌가 살아 움직이는 시간은 수면, 땀을 흘리는 운동, 호흡(산소 공급), 묵상할 때이다. 불신자가 이것을 한다.

② 이 힘을 얻으면서 도전하면 거기서 유일성, 썬릿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다. 이 축복을 절대 사명으로 알고 회복해야 한다(WRC 2강).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참된 치유)

선교지에 가기 전에, 선교 가서도 일하느냐고 지지지 말고, 내 스스로 영성을 회복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일성 선교의 세 번째 의미-1번과 2번에 될 때에 따라오는 결과요 절대적 축복이다.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다.

1) 우리는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헌신을 하는 것이다(WRC 3강).

작은 일을 해도 사람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준비를 하며 하는 것이다.

2) 3절 이하에 어떤 축복이 따라 온다고 했는가? 사실은 이것이 선교할 때 반드시 붙잡을 5가지 축복이다.

첫째, 열방과 열왕이 돌아온다(3절). 한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둘째, 무리들이 돌아온다고 했다(4절상).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다. 셋째,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고 했다(4절하). 후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명의 램넌트만 일어나도 된다. 그 한 명을 찾아내라. 넷째,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도 온다고 했다(5절). 세계 살리는 경제 축복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했다(7절). 참된 교회 회복과 부흥이다. 불과 100년 전에 전 세계에 가장 가난하고, 무지하고, 고통 당하던 한국에 이 선교의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결론-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은 일이 아니다. 불신자가, 과학자, 정치인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 선교의 축복 속에 쓰임 받는 것이다. 모두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원한다.